



보건부 주최 의료용 대마초 공식 오픈행사에 진열된 대마음료. © bangkokpost

태국 경제 영웅으로 떠오르는 대마(Hemp)

오랫동안 금지 식물로 여겨져 마약 목록에 포함되었던 잡초인 삼(Hemp, 대마초 사티바 식물의 일종)이 태국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해 태국정부가 대마(Hemp)와 대마초(Cannabis)를 새로운 현금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상업화를 합법화하면서 구강스프레이, 식품보조제, 스킨케어, 에너지 드링크부터 진통제, 스파 제품 등 10개 품목에 걸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1월 29일부터 태국 식약청(FDA)은 개인, 법무법인, 관공서, 지역사회기업 및 일반 기업들이 대마초와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등록 신청서는 수도인 방콕에서는 FDA사무소에 등록신청이 처리되며, 이외 지방에서는 지방보건소로 보내진다. 대마 수출입 신청서는 FDA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FDA는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에 대마를 신속히 등재하고 식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2월 22일 보건부 장관의 초안을 승인하여 대마초 기름 추출물을 첨가한 시리얼, 베이커리 제품, 음료, 과자, 버터 및 식품 보조제의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태국 카시콘 증권 수석부사장은 “대마를 재료로 한 상품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꼽으며 대마가 태국 경제의 새로운 강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태국 대마산업의 합법화에 따라 투자자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마 관련 사업과 연계된 종목들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마 현상 (Hemp Phenomenon)



‘대마현상’으로 올해 말까지 대마를 재료로 한 제품이 대거 선보일 전망이다. 대마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몇몇 회사들은 다음과 같다. Carabao Dang 에너지 드링크 제조사인 카라바오 그룹, 에너지드링크 M150의 제조사인 Osotspa,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RS Plc, 베이커리 체인 Au Bon Pain의 운영사인 Mudman Plc, 화장품샵 Beauty Buffet의 운영사인 Beauty Community Plc, 스네일 화이트 스킨케어 브랜드 제조사인 Do Day Dream Plc, 의약품 유통사인 Inter Pharma Plc, 채식 및 식물기반 식품 제조사인 NR instant Product Plc(NRF), 녹차음료 제조사인 Ichitan Group Plc, 음료 회사인 Appe, 그리고 Dentiste치약 생산자인 Siam Health이다.

NRF사의 최고 경영자는 "태국에서 대마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마에서 나오는 비정신성 화합물인 마리화나와 CBD(Cannabidiol) 제품의 글로벌 시장가치는 2019년 최대 175억 달러였으며, 2027년에는 650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NRF사의 최고 경영자에 따르면 "대마는 태국에 더 많은 투자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현금 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NRF에 있어서는 매우 새로운 시도지만 지난 5-6년간 미국의 트렌드를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대마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미국시장에 유입되었고, 대마는 다양한 제품과 포맷으로 미국시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마는 재배가 쉽고, 곤충에 강하며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점 NRF의 관심을 끌었다. 대마도 식물이기 때문에 건강한 대체 식품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NRF는 대마의 영양 가치를 연구하기 위해 태국 대학과 협의 중에 있고 대마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회사를 인수할 계획에 있으며 식재료로 대마 씨앗과 기름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높다. 태국은 물론 해외로도 사업영업을 넓히고 싶다고 덧붙였다.

식음료

카라바오그룹(Carabao Group)의 CEO는 "태국이 국내 식재료 제품에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면 카라바오그룹이 첫 브랜드로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마가 이완 작용과 암세포 억제 기능이 있어 삼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카라바오그룹은 대마 오일 활용 식음료 제품에 대한 FDA의 지침이 나오는 대로 즉시 대마가 들어간 음료를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며, 대마를 활용한 2-3가지 대체 제품으로 예나

지 드링크 또는 CBD(Cannabidiol)를 사용한 청량음료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린 과일과 냉동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Global Consumer Plc(글로벌콘)의 전무인 Louise Tachaubo씨는 "대마가 식물성 제품의 재료로 관심이 높으며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활용 가능하며, 향후 확장을 통해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Louise씨는 당사가 내년에 해외로 진출하기 전 태국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OEM을 통해 100개 이상의 브랜드를 생산해 왔다. 지금

이 우리만의 제품을 만들 적기이다", "당사는 올해 6개의 식물성 식품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며, 그 중 1-2개는 대마를 재료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글로벌콘은 3월에 대마 식품(Hemp food)을 확정하고 4월 말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글로벌콘은 태국의 사뭇송크란 공장에 1억바트를 투자해 자체 브랜드와 OEM을 위한 대

마 기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대마 관련 제품으로 3000만 바트의 수익을 예상, 2023년에는 1억 바트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이커리 체인인 Au Bon Pain은 태국정부가 대마의 상용화를 합법화한 후 제과점 체인이 삼(Hemp)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u Bon Pain은 "대마가 건강한 음식으로 포지셔닝되어 있어 대마를 활용한 다양한 기회를 찾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Au Bon Pain은 대마 제품에 적절한 고객 연령대와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태국 마마라면의 제조사인 Thai President Foods Plc의 사장실장인 Pun Paniengvate씨는 내부적으로 대마의 장점을 연구했고 대마를 제품의 재료로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왔다고 말했다.

Key Point

태국정부의 경기부양정책과 더불어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태국에서는 당분간 대마를 활용한 제품들의 인기와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한 샵사브 전문점에서 세트메뉴에 대마잎을 함께 제공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이색적인 음식으로 대마가 각광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태국에서도 건강, 안전성,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해당 트렌드를 감안한 판매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